

## Evaluation of root resected teeth : Results of more than 2 year follow-up

이충호\*, 박현규, 최미혜, 박진우, 이재목,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치주질환자에게 있어 치조골, 백악질, 치주 인대 등은 치주 병인들에 의해서 파괴되며 특히 구치부에서는 치주조직의 파괴에 의해 치근이개부의 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치근이개부 병변은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치주질환의 빈번한 병변으로 치주 치료에 있어서 예후 결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좁은 furcation entrance, root concavity와 같은 치근 이개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치근 이개부로의 접근성 등 치료에 제한이 많으며 구강 위생 유지 또한 힘들게 된다.

치근 절제술은 이러한 치근 이개부 병변의 치료를 위해 Farrar(1884)가 처음 root amputation을 보고한 이래로 100여년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다. Klavan(1975), Langer(1981), Buhler(1988), Carnevale(1991) 등은 치근 절제술에 대해 다양한 장기간의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러한 보고들에서 술후 구강 위생이 잘 유지된다면 치근 절제술이 치근이개부 치료의 유용한 modality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직유도재생술이 이러한 이개부의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조직의 재생이라는 치주 치료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2, 3도의 심한 치근 이개부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어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치근 절제술은 재생술식이 적응증이 되지않는 치근 이개부 병변의 치료에 있어 유용한 술식으로 고려되어진다.

이에 본 증례보고에서는 본원에서 치근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2년 이상 f/u되는 환자의 임상검사,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예후를 토의해보고자 한다.